

# 1960년대 이후 한국 주택의 스타일과 이미지 분석

## An Analytic Study on the Styles and the Images of Modern Korean Houses

윤지영\* / Yun, Ji-Young  
박영순\*\* / Park, Young-Soon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tyles and the images of the exterior and interior design of modern Korean houses since 1960s,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sign by analyzing the consistent and changing factors in the styles and images of modern Korean houses. The photos of 101 houses were used for content-analysis approach.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dominant exterior style of modern Korean houses has been changed from modernism to late-modernism and it brought some changes in the images with increase of deconstructivism and post-modernism style. While modernism has been consistently the most dominant style in the interior design of modern Korean houses with unified, urbane, masculine and unpartitioned images. It means that modernism style shown in modern Korean houses expresses certain consistent images, which can be defined as a characteristic of modern Korean house design.

키워드 : 주택 디자인, 스타일 분류, 이미지 특성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의 한국 주택디자인이 서구 건축의 영향을 받아왔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수용 또는 변형되었으며, 또한 변화가운데 나타나는 지속적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현대주택의 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첫단계로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였다.<sup>1)</sup>

본 연구는 그 두번째 단계로 한국 현대주택이 서구 양식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왔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 현대주택 디자인의 스타일을 외관과 실내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동일한 스타일 가운데에도 문화나 지역에 따라 다른 표현 특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스타일의 의미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 조직에 적용된 어떤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각 예술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시각 예술에 있어 역사 내의 한 특정 시기를 다른 시기와 구별하

기 위해 파생된 분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적 스타일은 다른 문화들로부터 차용된 이미지들의 변형들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를 생산했던 사회적, 역사적 상황들로부터 파생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sup>2)</sup>

이에 반해 이미지는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감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으로부터 전달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여 몇 개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단순화시켜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능동적인 시지각 활동의 산물이다(Rawson, 1987). 즉 이미지는 대상과 관찰하는 주체의 본질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을 통한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외부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미지 관련 연구에서는 스타일과 이미지의 분류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되어온 ‘현대적인’, ‘모던한’, ‘고전적인’, ‘클래식한’, ‘한국적인’, ‘동양적인’, ‘전통적인’과 같은 어휘들은 분위기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구체적 어휘가 아닌, 특정 시기 또는 특정지역의 건축 및 디자인 특성을 하나로 통합하여

1) 한국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실내디자인 학회지 16호, 1998.9)에서는 1960-90년대까지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주택 실내의 표현 특성을 각 구성요소별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현대주택 실내공간의 디자인 특성을 형태적 단순성, 공간적 간결성, 재료의 대체성, 공간의 융통성과 개방성으로 규명하였다.

2)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32, 서울, 안그래픽스, 1994.

\* 정회원, 신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시간강사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명명하는 어휘들로, 느낌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이미지 평가어휘와는 구분된다. 또한, '고전적인'이나 '전통적인'과 같은 어휘들은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의미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와 같은 어휘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스타일과 이미지 표현을 위한 어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국제주의 양식의 경우 20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하였던 양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상업건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건축 및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 양식으로 현재까지도 선호되고 있다. 국제주의 양식에 속한 건축물이나 디자인은 통일된, 공간감 있는, 비장식적인, 간결한 등의 이미지 표현 어휘를 통해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타일은 국내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따라 모더니즘, 레이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서구 고전 스타일 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미지는 특정 사회의 구성원사이에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보편적 어휘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해도 찰스 레니 맥킨토시로 대변되는 영국의 아르누보와 빅터 호르타나 헥터 귀마로로 대변되는 프랑스나 벨기에의 아르누보는 그 표현 특성에 있어 극단적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스타일의 분류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이미지로 언급되는 표현 특성은 문화적, 지역적 특성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주택디자인은 오랜 세월동안 한 민족의 주거관과 주택에 대한 이상향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지역적, 민족적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현대주택의 스타일이 모더니즘으로 파악되었다고 해도, 그 이미지에 있어서는 서구 모더니즘 계열의 주택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바로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960-90년대까지 한국주택 외관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분석한다.
- 2) 1960-90년대까지 한국주택 실내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분석한다.
- 3) 한국 현대주택의 스타일과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지속요소와 변화요소를 파악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주택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에 있어 한국적 표현 특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이론적 고찰

### (1) 한국전통건축 및 실내공간의 특성

한국 건축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생활 기능의 변화와 표현 육구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그 전형적 형태를 유지, 계승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건축의 원형적 요소들이

자연과 지역 특성, 시각적 미감에 깊이 일치된 토착성을 가짐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에 관한 여러 연구(주남철, 1983, 윤장섭, 1987, 신영훈, 1989)에서 전통건축의 특성으로 안정감을 지니고 있는 한국적 척도, 순박하고 아름다운 선, 조화로운 공간 등이 언급되었다. 한국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노년기 지형을 형성하여 낮은 산들, 구릉과 낮은 토지들이 맥을 잇고 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곡선의 중복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모나고 날카로운 것을 피하는 조형의식과 연결된다. 즉, 자연적인 것에 미의 기준을 두는 자연주의의 정신으로 인해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비정제성'의 조형으로 구수한 맛을 보여준다.<sup>3)</sup>

한국 전통 실내의 공간개념은 이러한 조형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디자인 특성을 종합해 보면 인위적인 기교나 요란함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간결한 선과 장식의 절제를 통한 여백의 미, 흰색과 자연 소재의 중성색을 사용한 검허하고 조화로운 공간, 위압적인 규모가 아닌 인체에 적합한 밝고 친밀한 인간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

### (2) 디자인 이미지 평가어휘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이미지 평가도구로는 오스굿(Osgood, 1954)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미분별척도법은 물리적인 시각적 환경의 양상에 관한 반응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의미분별척도법은 연상방법과 척도화 방법의 조합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의미해석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의미분별척도법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실내공간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Kasmar<sup>5)</sup>와 이연숙<sup>6)</sup>의 연구가 있다. Kasmar(1970)는 의미분별척도를 이용하여 실내 환경을 묘사할 수 있는 66쌍의 어휘를 개발하였으며, 이연숙(1983) 역시 실내, 외관, 조경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평가하는 환경서술 요인들의 구조를 규명하고 총 26쌍의 어휘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어휘들은 디자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휘라기보다는 공간의 크기, 채광, 통풍, 환기, 온도, 조명, 소음, 프라이버시, 위생 등 기능성과 관련된 평가 사항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디자인 표현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에 나온 연구 가운데, 기능성보다는 시각적 디자인 중심의 환경평가어휘에 관련된 대표적 연구들로 김선중<sup>7)</sup>, 이연

3)이은숙, 한.중.일의 조형의식 비교, 한일 디자인 심포지엄 발표자료, 1997, pp.807-812

4)박영순,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5

5)Kasmar, J.V., The Development of a Usable Lexicon of Environmental Descriptors, Environment & Behavior Vol.2, 153-169

6)이연숙, 주거환경의 미학적 가치측정을 위한 대표적 어휘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3, pp.87-97

7)김선중, 거실환경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울산대 연구논문집 17(2),

숙/유영희<sup>8)</sup>, 박영순 외<sup>9)</sup>, 황유진<sup>10)</sup>, 이운정<sup>11)</sup>, 안지윤<sup>12)</sup>, 이연숙 외<sup>13)</sup>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선중(1986)의 거실환경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실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표현 어휘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29쌍의 어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심리적 만족감(쾌적성), 시각적인 만족감(심미성), 전체적인 분위기 특성(조화성) 차원의 세가지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영순 외(1994)의 연구에서는 액킹(Acking)과 쿨러(Kuller)가 개발한 72개의 형용사 평가어휘 가운데 주택의 실내디자인 평가에 적합한 21개 어휘를 추출하였으며, 정서성, 심미성, 다양성, 공간성, 일상성의 다섯가지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도시 아파트거주자의 실내분위기 선호에 관한 연구(박영순 외, 1994)에서는 실내이미지를 개성적 이미지, 현대적 이미지, 고전적 이미지, 화려한 이미지의 네가지로 분류하고 독특한, 아늑한, 고전적인 등을 포함한 총 13개의 이미지 표현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운정(1995)은 한국 주택의 실내디자인 이미지 분석을 위해 여성잡지에 나온 관련 어휘들을 모두 수집하고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전통적, 아늑한, 산뜻한, 단순한, 중후한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다.

또한 안지윤(1997)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 조사를 위해 이미지 관련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어휘들 가운데 추출한 32개 어휘들을 질서성, 정서성, 심미성, 공간성, 장식성, 남성·여성성의 여섯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연숙/유영희(1986)의 연구에서는 이조시대 가구의 미적 특성을 표현하는 어휘를 외형적 아름다움, 공간의 안전성, 비가식성, 품위성, 섬세함, 간결성, 변화감, 견고성, 면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총 44개의 표현 어휘를 선정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 실내이미지 선호 판별도구의 개발(이연숙 외, 1998)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통·현대성, 남성·여성성, 단순·복잡성의 3가지 어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제작된 거실의 이미지 파악을 위해 사용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지 표현어휘에 관한 연구는 근래에 와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 2. 연구방법

1986, pp.261-277

8)유영희, 이조시대 사랑방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적 표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6

9)박영순 외, 실내환경 평가에 있어 색채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8, 84-97, 1994

10)황유진, 도시아파트 거주자 특성에 따른 실내양식 선호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이운정, 한국주택의 실내디자인 이미지 유형 및 특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2)안지윤, 한국과 일본 전통주택의 조형성에 대한 의식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3)이연숙 외, 실내이미지 선호판별도구, 지문당, 1997

### 2.1. 자료의 수집 및 선정<sup>14)</sup>

국내에서 1960년대이후 발간된 주택, 건축, 인테리어 전문지에 소개된 주택의 사진을 분석하였으며<sup>15)</sup>, 분석 대상으로는 외관과 거실의 실내 사진이 모두 나온 주택을 선정하였다<sup>16)</sup>.

1960년대 주택으로는 “공간”과 “주택”에 게재된 16개 주택이, 1970년대는 “공간”, “건축가”, “건축사”에 게재된 20개 주택이 선정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발간된 12개의 전문지 대부분에서 다수의 주택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련 전문지에서 2회 이상 다루어진 주택과 주택 단행본<sup>17)</sup>에서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으로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주택가운데 전문지에 1회 이상 실린 주택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960년대 16개, 70년대 20개, 80년대 30개, 90년대 35개로 총 101개 주택이 선정되었다.

### 2.2. 분석 도구

#### (1) 이미지 평가어휘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디자인 이미지 평가어휘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선행연구들(김선중, 1984; 유영희 외, 1986; 박영순 외, 1994; 이운정, 1995; 안지윤, 1997; 이연숙외, 1998)에서 언급된 분위기 및 이미지 표현어휘들을 모두 열거하였다. 둘째로, 멋있다-멋없다, 편하다-불편하다와 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 모던한, 현대적인, 고전적인, 전통적인 등과 같이 양식과 관련된 어휘, 독특한, 이색적인 등과 같이 특정 양식에 속할 수 없는 개성적 스타일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제외시켰다. 셋째로, 총 81개의 어휘 가운데 유사한 의미의 어휘들을 16개(8쌍)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넷째로, 분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내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같은 범주에 속한 어휘들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어휘들을 주려내고,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 가운데 “통일된-다양한”과 같이 반대적 의미를 지닌 어휘를 대표적 어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선정된 어휘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4인의 검증을 거쳐 실내와 외관을 모두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로 확정되었다<표 1 참조>.

결과적으로 주택 외관과 실내의 디자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편안한-정식적인, 통일된-다양한, 간결한-장식적인, 경쾌한-중후한,

14)연구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15)주택, 건축가, 건축사, 공간, 현대건축, 꾸밈,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플러스, 현대주택, 인테리어, 이상건축 등 12개 전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6)주택 실내공간의 경우 대부분의 사진 자료가 거실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므로 거실을 디자인 분석을 위한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신영숙, 1992; 김희희, 1992; 김영주, 1992) 거실은 주택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거주자의 개성 표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실을 분석 대상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17)단독주택(1996, 산업도서출판공사), 2001년 주거시설(1998, 플러스문화사), 건축가 30인의 주택작품집(1994, 주택문화사), 한국의 주택표형 (1992, 산업도서출판공사), 한국의 현대 건축 I:주택(산업도서출판공사) 등의 단행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수한-고급스러운, 폐쇄적인-개방적인, 전원적인-도시적인, 여성적인-남성적인의 8쌍의 평가어휘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2) 스타일 분류를 위한 디자인 특성표<sup>18)</sup>

주택의 스타일 분류를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스타일별 디자인 특성표를 작성하였다. 즉, 서구 현대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사조, 한국 현대 건축 및 실내디자인 경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을 모더니즘, 레이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서구고전, 한국적 스타일, 그리고 어느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 개성추구의 7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실내 공간은 그 특성상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가지 이상의 스타일이 혼재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박흥, 1991)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주도적 스타일과 보조적 스타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분류된 스타일 가운데 서구 고전은 20세기 이전의 고딕,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 아르누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한국 현대 주택에서는 로코코와 신고전을 제외한 다른 서구고전 스타일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서 제외시켰다.

<표 1> 디자인 이미지 평가어휘

#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어휘	대표적 어휘
1	편안한(4), 아늑한(3), 부드러운(4), 안락한(3), 온화한(3), 차분한(2), 안정적인(2), 은은한(1), 평온한(1), 포근한(1), 친근감있는(1)	편안한
2	정식적인(1), 딱딱한(1)	정식적인
3	통일된(3), 조화로운(3), 균형잡힌(1)	통일된
4	변화있는(3), 다양한(1), 복합적인(1), 풍부한(1)	변화있는→다양한
5	단순한(3), 간결한(3), 정돈된(3), 단정한(3), 깔끔한(1), 깨끗한(2), 절제된(1), 정갈한(1), 정연한(1)	간결한
6	화려한(3), 장식적인(1)	장식적인
7	생동감있는(2), 산뜻한(3), 유쾌한(1), 경쾌한(1), 가벼운(1), 명랑한(1), 즐거운(1), 자극적인(1), 캐주얼한(1)	생동감있는→경쾌한
8	안정감있는(2), 중후한(1), 무게있는(2), 위엄있는(2), 품격있는(2), 고상한(1)	안정감있는→중후한
9	수수한(3), 소박한(1), 겸손한(1), 서민적인(1)	수수한
10	고급스러운(2), 섬세한(2), 정교한(2)	고급스러운
11	'폐쇄적인'	폐쇄적인
12	공간감있는(3), 시원스러운(3), 여유있는(1), 개방적인(1), 탁트인(1)	공간감있는→개방적인
13	자연적인(3), 정감있는(2), 전원적인(1), 토속적인(1), 시골풍의(1), 푸근한(1), 목가적인(1), 구수한(1), 친근감있는(2)	자연적인→전원적인
14	도회적인(1), 세련된(4), '도시적인'	세련된→도시적인
15	여성적인(2), 우아한(2), 아지자기한(1), 곡선적인(1), 낭만적인(1), 화사한(1)	여성적인
16	남성적인(2), 강한(1), 직선적인(1)	남성적인

1. ( )안은 7개의 선행연구에서 각 어휘가 쓰인 수의 합계임.  
 2. '폐쇄적인', '도시적인'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연구자와 전문가의 합의에 따라 개방적인, 자연적인의 반대적 의미를 지닌 어휘로 선정하였음.

18) 스타일 분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한국 현대주택의 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2.3. 연구진행 및 분석 방법

1998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101개 주택의 디자인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이미지 특성과 스타일 분석은 연구자를 포함한 석사 학위 이상의 전공자 4인이 참여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이미지 분석의 경우 실내와 외관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선정된 8쌍의 어휘 가운데 선정하였으며, 4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재분석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스타일 분석은 디자인 특성표에 열거된 기준을 토대로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였다<sup>19)</sup>.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되었다.

3. 시기별 스타일과 이미지 분석

3.1. 1960-70년대 주택

(1) 외관

한국 현대주택의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모던 스타일이 5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복합적 형태를 띤 레이트모던 스타일이 36.1%, 한국적 스타일이 11.1%로 분석되었다. 모던 스타일은 콘크리트 벽과 평지붕, 문양이 없는 전면창, 직선적 형태 등의 특성으로 대표되며, 레이트모던 스타일은 벽돌로 된 벽과 박공지붕, 서로 다른 기하학적 형태가 맞물린 복합적 형태로 표현되었다. 또한 한국적 스타일은 기와 지붕이나 전통적인 창살 문양 등의 특성으로 대표된다. 전반적으로 모더니즘 계열의 주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주택의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 현대주택 외관의 스타일 분류

스타일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	
	빈도	%	빈도	%	빈도	%
신고전	0	0.0	1	3.3	0	0.0
모던	18	50.0	5	16.7	5	14.3
레이트모던	13	36.1	14	46.7	15	42.9
포스트모던	0	0.0	3	10.0	5	14.3
해체	0	0.0	0	0.0	8	22.9
개성추구	0	0.0	2	6.7	1	2.9
한국적	4	11.1	4	13.3	1	2.9
알수없음	1	2.8	1	3.3	0	0.0
합 계	36	100.0	30	100.0	35	100.0

주택 외관의 스타일로부터 느껴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1960-1970년대 한국 현대주택의 외관 특성은 정식적인(75%), 통일된(75%), 간결한(77.8%), 고급스러운(66.7%), 남성적인(91.7%), 도시적인(83.3%) 이미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한옥이 지닌 간결하고 통일감 있는 조형 특성과 직선적이고 도시적인 모더니즘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9) 선행연구(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에서는 각 구성요소별로 재료, 형태, 문양, 스타일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느껴지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표 3> 한국 현대주택 외관의 이미지 분류

이미지	분포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빈도(%)	합계(%)	빈도(%)	합계(%)	빈도(%)	합계(%)
1	편안한 정식적인	25.0	100.0	36.7	100.0	60.0	100.0
		75.0		63.3		40.0	
2	통일된 다양한	75.0	100.0	86.7	100.0	65.7	100.0
		25.0		13.3		34.3	
3	간결한 장식적인	77.8	100.0	73.3	100.0	40.0	100.0
		22.2		26.7		60.0	
4	경쾌한 중후한	47.2	100.0	46.7	100.0	65.7	100.0
		52.8		53.3		34.3	
5	수수한 고급스러운	33.3	100.0	36.7	100.0	42.9	100.0
		66.7		63.6		57.1	
6	여성적인 남성적인	8.3	100.0	23.3	100.0	28.6	100.0
		91.7		76.7		71.4	
7	폐쇄적인 개방적인	55.6	100.0	76.7	100.0	82.9	100.0
		44.4		23.3		17.1	
8	전원적인 도시적인	16.7	100.0	26.7	100.0	25.7	100.0
		83.3		73.3		74.3	

(2) 실내 공간

1960년대 거실의 주도적 스타일은 외관과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75%), 레이트 모더니즘 스타일은 19.5%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타일의 분류는 건축에서 비롯되었으며, 실내 디자인에서는 건축과는 달리 레이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스타일의 실내에 천장 및 바닥의 단차, 형태 및 패턴의 변형, 곡선의 도입 등으로 변화와 다양성을 표현한 실내를 레이트모던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보조적 스타일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3%), 한국전통 가구나 창살문양, 도자기, 동양화와 같은 장식품을 사용하여, 한국적 이미지가 첨가되는 경우가 16.7%로 나타났다. 또한, 혼성적 스타일 보다는 통일된 스타일을 선호하며, 한국적 스타일은 주도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장식품 등을 통해 보조적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표 4> 한국 현대주택 실내공간의 스타일 분류

스타일	분포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 도 적 스 타 일	로코코	2	5.6	0	0.0	0	0.0	
	신고전	0	0.0	3	10.0	3	8.6	
	모던	27	75.0	18	60.0	25	71.5	
	레이트모던	7	19.5	5	16.7	3	8.6	
	포스트모던	0	0.0	0	0.0	0	0.0	
	해체	0	0.0	0	0.0	3	8.6	
	개성추구	0	0.0	0	0.0	0	0.0	
	한국적	0	0.0	2	6.7	0	0.0	
	혼성(알수없음)	0	0.0	2	6.7	1	2.9	
	합계	36	100.0	30	100.0	35	100.0	
보 조 적 스 타 일	로코코	1	2.8	1	3.3	1	2.9	
	신고전	2	5.6	3	10.0	6	17.6	
	아르누보	0	0.0	1	3.3	0	0.0	
	모던	2	5.6	1	3.3	3	8.6	
	아르데코	0	0.0	0	0.0	0	0.0	
	레이트모던	0	0.0	3	10.0	0	0.0	
	포스트모던	0	0.0	0	0.0	0	0.0	
	해체	0	0.0	0	0.0	0	0.0	
	개성추구	0	0.0	0	0.0	1	2.9	
	한국적	6	16.7	7	23.3	5	11.8	
없음	19	52.8	6	10.0	19	55.9		
혼성(알수없음)	6	16.7	8	26.7	0	0.0		
합계	36	100.0	30	100.0	35	100.0		

위에서 분석된 거실의 스타일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이미지 특성을 파악한 결과, 1960-70년대 한국주택의 거실은 도시적인, 고급스러운, 남성적인, 개방적인, 정식적인, 중후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관의 이미지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실내는 보다 장식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sup>20)</sup>. 또한 실내와 외관 모두 정식적, 남성적, 도시적,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더니즘의 이미지 특성과 일치하며, 우리나라 현대 주택의 특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밖의 외부에서는 주택의 내부가 전혀 노출되지 않으며 방위에 따라 개방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외관에 비해 거실 내부는 전면창을 많이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탁 트인 느낌을 추구하였다.

3.2. 1980년대 주택

(1) 외관

1980년대 주택 외관의 스타일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스타일은 레이트모더니즘으로, 46.7%의 주택외관이 레이트모더니즘 스타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모더니즘은 16.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박스형태의 모더니즘 스타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변형과 시각적 흥미를 시도한 것으로 확립화된 모더니즘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적 스타

<표 5> 한국 현대주택 실내공간의 이미지 분류

이미지	분포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빈도(%)	합계(%)	빈도(%)	합계(%)	빈도(%)	합계(%)
1	편안한 정식적인	25.0	100.0	36.7	100.0	60.0	100.0
		75.0		63.3		40.0	
2	통일된 다양한	75.0	100.0	86.7	100.0	65.7	100.0
		25.0		13.3		34.3	
3	간결한 장식적인	77.8	100.0	73.3	100.0	40.0	100.0
		22.2		26.7		60.0	
4	경쾌한 중후한	47.2	100.0	46.7	100.0	65.7	100.0
		52.8		53.3		34.3	
5	수수한 고급스러운	33.3	100.0	36.7	100.0	42.9	100.0
		66.7		63.6		57.1	
6	여성적인 남성적인	8.3	100.0	23.3	100.0	28.6	100.0
		91.7		76.7		71.4	
7	폐쇄적인 개방적인	55.6	100.0	76.7	100.0	82.9	100.0
		44.4		23.3		17.1	
8	전원적인 도시적인	16.7	100.0	26.7	100.0	25.7	100.0
		83.3		73.3		74.3	

일의 주택이 13.3%, 포스트모던 스타일의 주택이 10%, 건축가의 개성을 표현한 주택이 6.7%로 나타나, 1980년대 주택에서 최초로 포스

20)외관은 78%의 주택이 간결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나 거실은 44%의 주택만이 간결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또한 56%의 주택 외관이 폐쇄적인 이미지로 분석되었으나 실내에는 31%만이 폐쇄적인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트모더니즘 계열의 디자인과 특정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개성적 디자인이 나타나, 보다 다양화, 개성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외관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 특성을 파악한 결과, 1980년대 주택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통일감으로 87.6%의 주택이 통일된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성적(76.6%), 폐쇄적(76.6%), 도시적(73.3%), 간결한(73.3%), 고급스러운(63.6%), 정식적(63.3%) 이미지를 지닌 주택이 여성적, 개방적, 전원적, 장식적, 수수한, 편안한 이미지를 지닌 주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 특성은 지붕과 재료 및 형태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직선적 형태, 비전면창, 재료의 통일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특성은 폐쇄성을 제외하고는 모더니즘의 특성과 일치하며, 외부로부터의 폐쇄성은 전통주택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 (2) 실내공간

1980년대 거실의 주도적 스타일과 보조적 스타일을 파악한 결과, 주도적 스타일은 모더니즘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레이트모더니즘이 16.7%, 신고전이 10%, 한국전통과 혼성적 스타일이 각각 6.7%로 나타났다. 1980년대 모더니즘 실내의 특성은 무늬없는 벽지, 목재나 모노롬의 단순한 바닥 처리, 직선적 형태의 가구, 장식의 절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조적 스타일은 한국적 스타일이 23.3%로 가장 많았는데, 목재빔 천장, 전통문양의 창, 함이나 퀘와 같은 전통가구, 그리고 한국화나 도자기와 같은 전통적 장식품에 의해 부분적으로 한국적 디자인이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등나무 가구의 사용이 유행하여 전형적인 모더니즘 실내에서 벗어난 내추럴한 분위기도 연출되었다.

1980년대 거실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개방적(80.0%), 도시적(73.3%), 남성적(70.0%), 고급스러운(66.7%), 중후한(63.3%)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개방적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전면창을 사용하고 LDK구성에서도 거실의 면적을 되도록 넓게 오픈하고 경우에 따라 천장을 2층까지 확장하는 등 실내에서의 개방성을 추구한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직선적이고 간결한 실내 구성, 단순한 마감처리, 가죽이나 값비싼 러그의 사용 등으로 도시적, 남성적,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3.3. 1990년대 주택

### (1) 외관

1990년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스타일은 레이트 모더니즘이다(42.9%). 한국현대주택에서 레이트 모더니즘은 매스의 분절이나 곡선의 사용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레이트모더니즘 계열의 주택가운데에도 한국적 느낌을 주는 주택과 서구적 느낌을 주는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금리주택(건축가:배병길)이나 자곡동주택(건축가:도각)은 서구적 형태의 주택으로, 오금리 주택은 수직, 수평적 매스의 분절을 통해 조각적 형태를 유발시킨 전형적인 레이트모던 건축인 반면, 자곡동 주택은 반원의 양철지붕과 콘크리트 벽의 대조로 하이테크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한편 지붕과 베란다의

사선 처리와 각도의 변화를 통해 모더니즘의 정형성을 탈피하거나 적벽돌과 목재지붕 등으로 한국적 느낌을 주는 주택도 있었으며, 전형적인 국제주의 양식의 주택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주택이 각각 22.9%, 14.3%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한국적으로 변형되었다기보다 서구고전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무의미한 장식과 사선의 벽처리 등을 통해 서구 스타일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0년대 건축가가 설계한 한국주택의 외관은 세계적 경향을 반영하여 레이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기존의 모더니즘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주택 외관의 이미지 특성을 파악한 결과, 1990년대에는 폐쇄적(82.9%), 도시적(74.3%), 남성적(71.4%), 통일된(65.7%), 경쾌한(65.7%), 장식적인(60.6%) 이미지를 지닌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외관 이미지의 폐쇄성 여부는 주택의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90년대에 와서 폐쇄적 이미지의 주택이 증가한 것은 서울 지가의 상승과 주택가의 부족으로 집들이 촘촘히 지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적, 남성적 이미지는 직선적 형태와 현대적 재료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과거의 중후하고 무게감있는 지붕대신 가볍고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많아지면서 외관 이미지가 경쾌하고 장식적으로 변화하였다.

### (2) 실내 공간

거실의 주도적 스타일은 1990년대에도 모더니즘이 7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신고전 8.6%, 레이트모더니즘 8.6%, 해체주의 8.6%로 나타나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모더니즘이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관의 대표적 스타일이 모더니즘에서 레이트 모더니즘으로 변화한 것과 비교해볼 때, 실내공간은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실내의 특성은 가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장식적 형태를 배제하여 통일된 가운데 여백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된 점이다.

보조적 스타일은 없는 경우가 60%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된 거실의 60%가 한가지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음을 의미하며, 혼성된 디자인은 선호되지 않음을 뜻한다. 보조적 스타일은 신고전 17.6%, 한국전통 11.8%의 두가지로 나타났으며, 모더니즘 스타일의 실내에 신고전이나 한국전통적 디자인이 가구나 장식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990년대 거실은 도시적인(91.4%), 고급스러운(82.9%), 개방적인(77.1%), 남성적인(71.4%), 정식적인(62.9%), 통일된(60%) 이미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미지 특성은 1990년대 거실 외관의 이미지와 비교해 볼 때, 폐쇄성과 개방성, 편안함과 정식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외부에서 보았을 때 주택은 폐쇄적으로 보이거나 거실 내부로 들어오면 전면창으로 외부의 전경이 들어오고, 거실과 현관 사이에 문이 없이 오픈되어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외관의 이미지가 정식적인 느낌보다 편안한 느낌이 많았던 반면, 거실의 이미지는 고급스럽고 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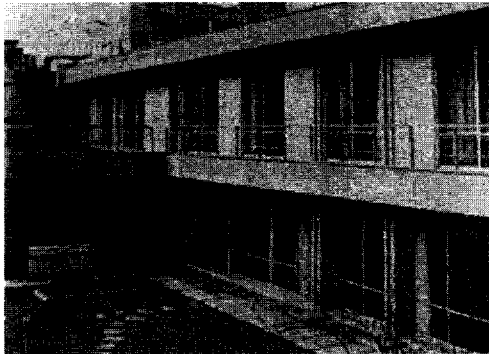
## 4. 한국 현대주택의 변화 추이

### 4.1. 주택 스타일의 변화성과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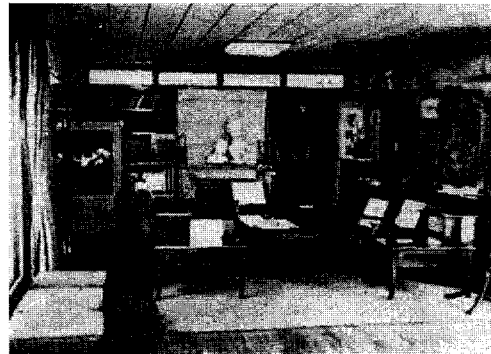
#### (1) 외관

한국 현대주택의 외관에서는 모더니즘과 레이트모더니즘 스타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0-70년대에는 평지붕에 콘크리트 외벽이나 벽돌을 사용한 간결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나 박공지붕에 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한 모더니즘 형태가 5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입방체를 첨가하여 기하학적 변화를 준 레이트모더니즘 스타일과, 모임지붕이나 합각지붕에 기와를 사용하여 한국전통적 느낌을 주는 주택도 공존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서구의 레이트 모더니즘 경향은 80년대에 와서 적극적으로 한국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적 주택 형태가 레이트모더니즘의 영향

으로 변형된 케이스도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모더니즘의 간결한 형태에 기하학적 변형을 주는 레이트모더니즘 계열의 주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모더니즘 스타일의 주택이 감소한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주택이 등장하였으며, 한국적 스타일의 주택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와서 처음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주택은 서구의 예로 보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0년대에 와서 해체주의 경향의 주택이 증가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의 주택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1990년대에도 여전히 레이트모더니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무의미한 장식 요소를 첨가하는 해체적 디자인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외에도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개성추구, 한국적 스타일도 공존하여 모더니즘의 획일화에서 탈피하여 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a) P씨택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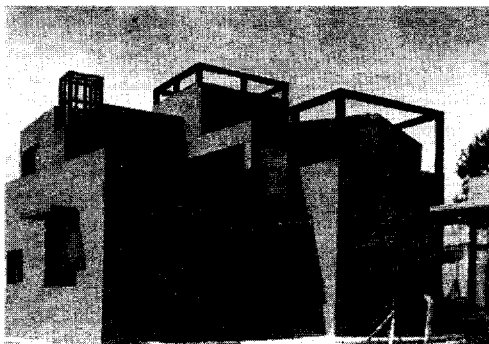
b) Y씨택 (1967)



c) 합정동 주택 (1967)



d) 못골 주택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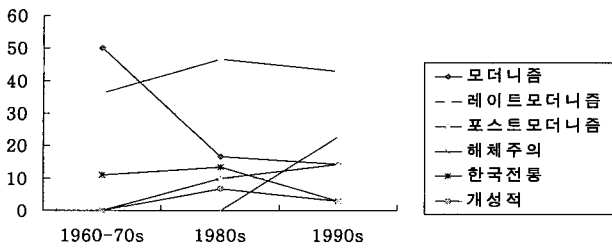


e) 오금리 주택 (1994)



f) 새암리 주택 (1991)

<사진 1> 1960-90년대 한국 현대주택 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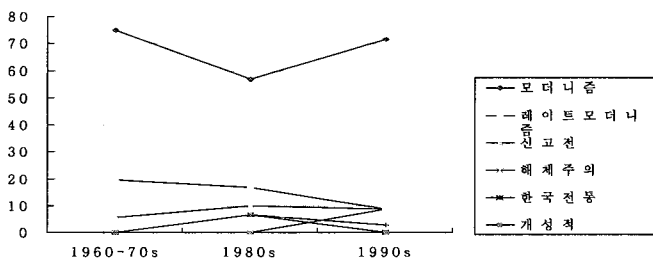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현대주택 외관의 스타일 변화

(2) 실내

거실 스타일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모더니즘이 지속적으로 가장 주도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외관에 있어 60-70년대에는 모더니즘 스타일이 가장 많았으나 80년대부터는 보다 복잡적이고 장식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한 레이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 스타일을 대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관과는 달리 거실에서는 천장, 벽, 바닥, 물딩, 창문 등의 실내구성요소에 있어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장식이나 문양이 절제된 직선적 형태와 단순한 패턴을 지닌 모더니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레이트모더니즘 양식은 1980년대까지 15-20%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2층으로 확장된 천장과 곡선의 도입, 천장의 중심부나 가장자리에 원형이나 사각의 단차를 두어 변형을 가한 천장, 단차를 둔 바닥과 중앙에 설치한 벽난로 등을 통해 직선적인 모더니즘 형태에 기하학적 변형을 주었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거실 실내의 기하학적 변형은 90년대에 와서는 무의미한 사선범, 원색의 페인팅, 의외의 기둥이나 간막이의 사용 등을 통해 해체주의 스타일로 점차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신고전 양식은 2, 3개의 주택에서 주도적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신고전 양식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화려한 패넬링, 천장이나 물딩의 스테이크 조각, 가구에 사용된 동물 형상 등과 같은 과장된 장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화된 실내공간에 신고전 스타일의 가구와 장식품을 통해 부분적으로 신고전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



<그림 2> 한국 현대주택 실내공간의 주도적 스타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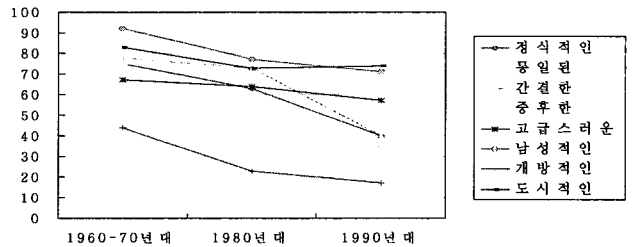
보조적 스타일에 있어서는 주기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1960-70년대의 스타일 분포가 80년대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다가 90년대에 와서 다시 유사한 스타일로 재현되었다. 1960-70년대에는 보조적 스타일이 47%의 주택에서 나타났으나 80년대에는 90%의 주택에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주택에서 모더니즘외에 로코코, 신고전, 한국전통

등의 스타일이 모더니즘과 함께 혼성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혼성적 경향은 90년대에 와서 다시 감소하여 보조적 스타일이 없는 주택이 56%로 증가하였다. 이는 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는 통일된 이미지를 지닌 주택의 증가와 연관된 것이다. 한국전통양식이 보조적 스타일로 나타난 것도 60-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는 23%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90년대에 와서 12%로 감소하여 60-70년대와 90년대에는 혼성적 스타일보다는 통일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4.2. 주택 이미지의 변화성과 지속성

(1) 외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주택의 외관은 남성적인, 도시적인, 통일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각 시기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60-70년대의 외관은 남성적, 도시적, 간결한, 통일된, 정식적인,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파악되었다. 80년대에 와서는 재료와 형태의 통일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비전면창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폐쇄적 느낌을 주는 주택이 증가하였다. 90년대의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전의 정식적, 간결한, 중후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편안하고 장식적이며 경쾌한 이미지의 주택이 증가한 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90년대의 사회문화적 경향을 반영하였다.



<그림 3> 한국 현대주택 외관의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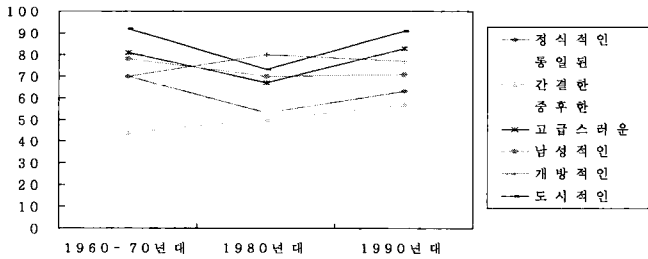
(2) 실내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거실의 이미지는 도시적, 고급스러운, 개방적, 남성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일감과 간결함의 측면에서 보면 1960-70년대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지닌 거실과 다양함을 주는 거실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90년대에 와서는 간결하고 통일된 느낌을 주는 거실이 증가하여, 점차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추구하게 되었다.

외관과 실내의 이미지 특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실내 개방적인 반면 외관은 폐쇄적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르 코르비제나 미스 반데로의 주택에서 나타나듯이 서구 모더니즘 계열의 주택이 가로로 확장된 대형 창문을 사용하여 실내외의 상호관입성과 개방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전통주택의 경우, 높은 담으로 외부에서 주택내부가 절대 보이지 않는 폐쇄적 이미지가 강조되었으며, 현대주택에 와서는 담너머로 보이는 이중의 창문은 부분창으로 처리하여 외부인이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디자인된 것을 볼 때, 전통적인 폐쇄적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거실의 내부는 전면창을 사용



하여 외부의 전경을 실내로 유입하고 환관에서는 거실이 칸막이 없이 오픈되는 형태가 증가하여 거실을 중심으로 한 실내공간의 개방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한국 현대주택 실내공간의 이미지 변화

한편,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에서 모더니즘 양식이 대표적 양식으로 정착된 원인을 한국 전통실내의 디자인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전통실내가 지닌 간결함, 장식의 절제, 여백의 미, 인간적 규모가 지닌 친밀감 등의 특성은 추상화 및 기능주의로 대변되는 모더니즘의 이념과는 무관할지라도 모더니즘의 이미지와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주택의 실내공간에 반영되고 있다. 즉, 한국전통실내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간결한, 비장식적인, 도시적인, 개방적인 등의 모더니즘 이미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에서 모더니즘 스타일이 거부감 없이 수용,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 스타일은 한국전통실내의 특성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디자인 특성이 현대적 재료와 형태를 통해 변형된 것으로 해석된다.

## 5. 결론 및 제언

한국 현대주택의 외관 스타일은 세계적인 변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1960-70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모더니즘 스타일은 1980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레이트모더니즘 스타일이 대표적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계열의 주택이 증가하여 모더니즘 양식에서의 탈피와 다양화라는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실내(거실) 디자인에 있어서는 모더니즘이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레이트모더니즘, 신고전, 해체주의 등의 스타일은 외관에 비해 매우 작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실내 디자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서구 고전 양식이나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이 한국 주거 생활의 장으로 한국적 디자인의 원형을 반영하고 있는 주택 실내공간에서는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 현대주택의 이미지 특성을 종합해보면, 외관은 폐쇄적, 도시적, 남성적, 통일된 이미지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었으며, 90년대에 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의 영향으로 경쾌하고 장식적인 이미지가 첨가되었다. 실내공간의 이미지는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도시적, 고급스러운, 개방적, 남성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관과 비교해볼 때 실내공간의 이미지는 그 변화가 적었다. 특히 90년대에 와서 경쾌한, 간결한, 통일된 이미지가 다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1960-70년대의 이미지가 80년대에 소폭의 변화를 겪다가 90년대에 와서 다시 재현되었다.

이와 같이 외관과 실내를 비교해 볼 때, 스타일의 변화가 이미지의 변화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관은 스타일이 다양화되면서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내공간은 모더니즘 스타일이 지속되면서 이미지의 변화도 매우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에서 추구하는 특정한 스타일과 이미지가 명백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외관의 지속적인 변화와는 달리, 거주자의 생활방식과 기호를 반영한 실내공간은 한국 전통적 디자인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서구와 차별화 되는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주택의 외관과 실내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주택이 지닌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스타일과 이미지에 있어서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파악하였는데, 변화요소를 통해서는 한국 현대주택의 특성과 경향을 이해하고 지속요소를 통해서는 한국적 디자인으로 정착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을 다루었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타일 및 이미지 특성이 한국 현대주택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각화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서울, 기문당, 1991.
2.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1-4, 한길사, 1994.
3.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라픽스, 1994.
4.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1996.
5. 박영순 외, 우리의 옛집이야기, 서울, 열화당, 1998.
6. 신영훈, 한국의 조형, 대원사, 1989.
7. 윤장섭, 한국건축사, 서울, 동명사, 1979.
8. 주남철, 한국건축미, 서울, 일지사, 1983.
9.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1986-1990, 기문당, 1994.
10. Collins, Peter,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역, 태림문화사, 1992.
11. Curtis, W. J.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rentice-Hall, 1987.
12. Gilliat, Mary, Period Style, Conran Octopus, 1990.
13. Jencks, Charles, Late-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 1980.
14. Jencks, Charles, Architecture Today, Acacemy Edition, 1982.
15. Jencks, Charles, Neo Modern Architecture, SIGMA UNION, 1989.
16. Klots, H., Modern Architecture, 현대건축론, 양동양 역, 기문당, 1994.
17. Lampugnani, V. M., 현대건축사조개관, 김정호 역, 기문당, 1990.
18. 김경수, 한국현대건축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19. 박 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91.
20. 윤지영·박영순,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학회지 9호, 1998.
21. 이은숙, 한·중·일의 조형의식 비교, 디자인학 연구(한일 디자인 심포지엄 발표자료), 1997.

<접수 : 1999. 8. 3>